백지 볼줄 알면 만법 굴릴 수 있어

☞ 19면에서 계속

것입니다. 사실 이 사회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주나 궁합 등의 운명철학 쪽을 먼저 감정한 후에 일을 하는 것이 뿌리깊게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 자신이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도 있는데요, 이러한 믿음 이전에 운명철학의 실체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운명은 없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운명철학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운명철학을 신봉하는 저희 가족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이 마음의 도리는 일체를 놓아서 일체를 건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고가 나오더라도 생각으로 지어서 이것은 업보다, 유전이다 하고 생각을 옭아매서 움켜쥐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왜냐? 부처님 자리에서 우리가 한생각 그대로 낼 때, 그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대로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녹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한 바로는, 죄를 억만 겁을 지었다 하더라도 한생각을 진정 진실하게 내면 공해서 그대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죄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으며, 병이 어디 붙을 자리가 있으며, 업보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왜 업보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목을 딱 매서 그렇게 올가미를 씌워야 속들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비행기가 지금 떠서 프로펠러가 사정없이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팔자니, 운명이니, 무슨 인과가 있다, 유전이 있다 이런 게 정말 몰록 그냥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자기까지도. 그러니까 일체를 맡겨놓고 자유스럽게 사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부처의 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본래 공해서 병이니, 업보니 이런 거는 붙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은 업보에 끄달린다, 유전이 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붙을 자리가 없으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러니 내가 공했는데, 내가 없는데 병이 어디 붙을 게 있고, 유전이 붙을 게 있고, 팔자가 붙을 게 있고 그러나? 하는 거죠. 한생각 놓는다면, 그렇게 살던 습을 다 놓는다면 그냥 그냥 그대로다, 이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본래 없어서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지금 거사님의 병도 물질로 끄달리는 마음을 마음의 근본을 알아가게 이끌어 주기 위해서 주인공 자리에서 이끌어 가는 나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병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일 뿐입니다. 다만 그러한 증세가 일어나면 그것을 담담히 지켜보면서 과거에서부터 인연 지어서 내 몸 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나를 이끌어온 당신이 형성시켜 놓았으니 당신이 해결할 수도 있지. 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근본 주인공에 맡겨놓고 들어가십시오. 일거수일투족을 행할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져왔으니 그 자리에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업보니 운명이니, 모든 인연 지어진 것을 녹이는 것도 당신밖에는 없다 하고 지극하게 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알콜중독 빠져 고생

문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외조부가 알콜중독과 중풍으로 돌아가신 후 저희 어머님도 알콜중독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 남동생도 술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 보니, 장인어른도 큰 사기를 당하신 후, 술병으로 간장, 위장 등에 병이 생겨 비참하게 자살하셨습니다. 아내는 부자로 살다가 장인어른의 몰락에 큰 상처를 받고는 돈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며, 무서울 정도로 술을 입에 대고 있으며, 극도로 비관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 쪽은 독실한 카톨릭 집안인데 늘 종교가 달라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주인공에 절실히 다 맡긴다고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도자로서 혼자 해결 못하고 이런 질문을 올려야 한다는 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답 항상 말씀드리기를, 모든 건 내면 용광로에 맡겨 놔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다가 현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서 나온 것을 제자리에다 돌려놓으면 바로 과거에 입력된 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팔자 운명대로 그대로 나온다면 십중팔구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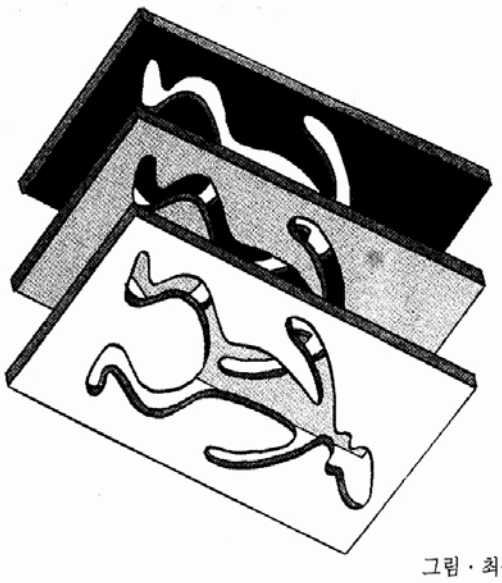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공했는데 내가 없는데 병 · 업보 · 팔자 어디 붙을까

그러나 그것도 마음 장난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생활 자체를 마음의 용광로에다 되돌려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인과의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 세균성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다 되돌려 놔야만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앞서의 입력된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현실에 생각하는 그대로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두가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고들 야단들이지만 그것은 바로 한 군데서, 즉 말하자면 가던 길에서 엎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일어설 수가 없다, 단 엎어졌으면 넘어진 그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근본을 믿고 근본에 돌려 놓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지극하게 주위의 분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렇지 않고 강제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돼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인공, 당신만이 나와 연관된 모든 이들이 근본을 믿고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지극하게 마음으로 관(觀) 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법회도 참석하고 도반들과 공부에 대한 대화도 하면서 하신다면 더욱 쉽게 풀리겠죠. 그러니 그것도 자유예요. 그냥 한탄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까지 편하게 이끌 것이냐, 그래서 정말 인생의 진실한 면을 맛보고 갈 것인지 오직 나의 자유에 달려 있을 뿐이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되기를 관하고 있는데…

문 가끔은 어떤 일들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못되고가 없이 그냥 그렇게 관하고 있다보면, 마치 무언가 해야될 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의 관에 잘못이 있지 않은 지요. 그리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사업과 가정의 안위 등등, 이러한 마음이 과연 바른 모습인가요?

답 나는 번뇌망상이 왜 이리 많을까 하는 생각도 놓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놓고, 공부가 왜 이렇게도 안되나 사생결단을 내야지 하는 생각도 놓고 편안히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조바심을 낸다면, 그것은 마치 많은 다리를 가진 지네가 잘 가다가 문득 자기 다리를 보고는 아니, 내 다리가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서로 엉키지도 않고 잘 갈 수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서로 다리가 엉켜서 갈 수가 없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믿고 놓고 가면 잘 가게 되는 것을 공연히 생각을 일으켜서 걱정을 하니까 오히려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다 안된다 하는 생각도 다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니,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늘이 무너져내려 죽는다 해도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게 되어서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살려고 바둥바둥대면서 나는 왜 다 맡겨 놓는데도 안되나? 부처님! 주인공!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해달라긴 누구더러 해달랍니까? 해달라면 벌써 둘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빌어본들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에 놓았다면 놓았다는 생각마저 없이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혹시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를 한다면 결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근본을 믿고 좀 지극하게 맡겨보세요. 어차피 죽을 것, 하루 빨리 죽으면 어떻고 하루 늦게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떳떳하게 좀 살다가 간다면 하루 빨리 죽은 것도 억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잘되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식구들이 각기 다른 종교 믿어

문 가족들이 각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우리 집 식구들만 살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커서 다른 집 사람을 식구로 맞아들이니 갑자기 예민한 문제로 드러나 곤혹스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기 다른 종교로 인해 생각이 다르게 나타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봐야 할까요?

답 천주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습니까마는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타의에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처가 자신한테 있는 건데 고상을 걸어 놓고 빌고, 부처님 형상을 모셔 놓고 빌고, 십자가를 걸어 놓고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셔 놓은 것은 빈 껍데기, 내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처는 반드시 자기한테 있다, 그게 생명처고 에너지가 되고 그게 과거 자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모두.

자기한테 있는 걸 믿지 못하니까 모두 통신이 두절되죠. 자기 원소가 자기한테 있지 딴 사람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닥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게 과거에서부터 내가 살아온 대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타에 입력이 되듯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믿고 다시 맡기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니까 지금 처해있는 힘든 상황들도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처가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도록 돌려놓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처를 자기한테서 찾으라고 말해 주세요. 주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다고요. 주님이라고 그러지만, 주인공이라 그러는 것도 모두가 공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공해서 돌아가듯, 모든 것이 끊이지 않고 돌아가듯, 공했지 않습니까? 더불어 같이 공생(共生)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고정을 시켜서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고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을 분리시켜서 배척하니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건 타의에다 의지하고 기도를 하지만 관하는 거는 자의에 관하는 거죠. 관한다는 거는, 부처님이 삼천리 밖에 계신다 해도 여기에서 하는 거죠, 어디 법당이 따로 있고 예배당이 따로 있습니까?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사세요.

그냥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서 관하면 행선이라 그러죠, 서서 다니다 관하면 입선이고요. 앉아서 관하면 좌선이구요. 그러니 생활에 선이 아닌 게 하나도 없죠. 모두들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요. "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마음에 있더군요." 하구요. 그러니 이 마음법이 얼마나 편리하면서도 직속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항상 자기를 이끄는 주처가 자기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그 이름이야 뭐면 어떻겠습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고 화목하게 가정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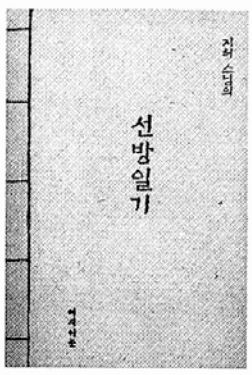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 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겉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듣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 · 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 · 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체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 · 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 · 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